

2000학년도
연구과정 졸업논문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주일성수의 실천적 의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임 시 덕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주일성수의 실천적 의미

指導教授 朴 種 根

이 論文을 研究課程 卒業論文으로 提
出함


2000年 12月 07日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임 시 덕

임시덕의 卒業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양익 

審査委員 원정환 

審査委員 김서영 

審査委員 (이수영)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년 12 월

謝 辭

본 論文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
하여 주신 박종근 교수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2000년 12월 07일

제 출 자

차 례

I. 서론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II. 본론

A. 주일에 대한 성경 적 고찰	
1.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	3
2. 복음 적 주일 관	5
3. 신약에 나타난 주일	8
B. 주일성수의 신학적 고찰	
1. 초대교회의 주일 관	9
2. 바울의 주일 관	12
3. 초대교회 예배의 형성과정	16
C. 개혁자들의 주일 관	
1. 칼빈의 주일 관	21
2. 루터의 주일 관	23
3. 신조에 나타난 주일 관	27
D. 주일의 목회학적 고찰	
1. 초기 한국교회	30
2. 현대의 주일	33
3. 정보화 시대의 주일	35
4. 주일성수와 상황문제	36
5. 일요일이란 명칭 사용에 대하여	38
E. 주일 성수의 실천적 의미	42

III. 결론	48
-------------------	----

I. 서론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적지 않은 교회들이 주일날에 관련한 문제를 다룰 때 세 가지 측면에서 혼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주일은 “성수”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내는 것이냐? 의 문제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주일날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이기에 “주일성수”문제는 율법적으로까지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주일 성수가 신앙의 절대적이고 생명과도 같은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교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저녁예배를 없애고 오후로 예배를 대치하는 문제나, 주일날 치러지고 있는 각종 국가고시와 입시들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직장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의 관리 문제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주일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의 문제이다. 많은 교회가 주일날 드러지는 예배가 주일의 전부인양 예배가 끝나버리면 주일이 다 지나버린 것과 같이 가르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인들도 어떻게 든 오후예배만 드리고 나면 주일의 의미는 더 이상 자신의 하루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실천적 의미에 있어서 주일을 시대에 맞게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의 문제이다. 즉 시대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직업의 재편 과정 속에서 많

은 직업이 사라지고 탄생하는 가운데 시간과 날의 개념이 직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이 주5일 근무제와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 버린 컴퓨터 문화의 시대에 주일의 실천적 의미를 해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특히 論者는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외항선을 타고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에 선상의 생활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육지와는 너무도 다른 것을 경험 하게되었다. 그곳에서는 특별히 주일이라고 해서 휴식을 취한다 든 가,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직업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 같은 경험은 많은 직장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주일의 실천적 의미를 목회학적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안식일과 주일날의 관계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지만 쉽게 처리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안식일과 주일날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천지창조의 내용의 해석문제, 신약과 구약의 관계, 특히 구약의 율법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태도, 안식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신약 교회에서 지켜졌던 공식적인 관습 그리고 신약의 근거에 의한 교부들(2세기)의 교회에서 실시되었던 확실한 근거의 문제들을 해결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論文은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본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주일관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는 주일에 관한 성

경적 입장을 살펴봄으로서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에 관련한 복음적 주일관을 정립하고, 2장에서는 신학적 입장에서 특히 바울과 칼빈의 주일관을 통하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주일관과 비교함으로써 신학적 주일관을 정립하며, 3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개혁주의 주일 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목회학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다룸으로써 실제적 적용의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며, 5장에서는 주일의 실천적 의미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본론

A. 주일에 대한 성경적 고찰

1.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원형은 구약의 안식일이다(창2:2-3).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명하신 우주의 원리이자 삶의 원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칠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므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이 따라야 할 패턴을 보여 주셨다. 성경의 저자들은 일주일 주기 형태의 역사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본다.¹⁾

본래 안식일 제도는 타락 전에 주어진 것이며 구속의 필요가 없던 시대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는 결혼제도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만족케 하는 제도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

1) 한정배, 안식일에서 주일날까지, (도서출판 선교, 1989). p.161.

상을 닮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에게 가장 심층의 욕구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제도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식일의 일차적 기능이었고 의무적, 상징적 기능은 부차적이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형태와 목적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이 집트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의 구속적 행위의 기념과 관련이 되었다. 아담의 타락 후에 역사 종말을 위한 그의 계획은 그의 구속적 행위로 나타났다. 이 행위의 초점은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발견되어졌다. 이러한 두 요소의 신학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었던 안식일은 그의 백성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모세 언약의 근본적인 표징이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행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동시에 안식일에 관련하여 예수의 메시아적 선언이 소개됨으로써 그의 공생애의 사역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도래되는 새 질서의 관점에서 여러 신약 제자들은 예수의 전 사역이 안식일의 요구와 안식일의 동기를 성취했다고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역사과정에서 이 세상 끝 날에 있을 참 안식의 의미를 가져다 주셨다. 비록 이후에도 유대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켰지만, 모세 언약에서의 안식일 개념은 더 이상 믿는 자를 구속하지 않았다. 나중에 일주일의 첫날이 중요한 날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그 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 날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후에는 이날이 주의 날로 불리게 되었다. 이 날의 특수성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드리는 점에 있었으므로 구약의 안식일에 요소가 되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가졌던 육체적 안식을 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았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주의 날의 개념은 2세기의 교부들의 문헌뿐만 아니라 3세기에서도 유사하게 계속 되었다.

그러나 안식일제정 기원이 천지창조에 두느냐 아니면 모세율법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결과가 초래되어진다. 만일에 안식일을 창조질서에 가정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들에게 휴식의 하루를 정한 이 날이 영원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루터와 칼빈은 안식일을 창조질서로서 보았다. 그러나 휴식과 안식일과의 관계를 납득할 만큼 설명하는데 실패를 했다.²⁾

그후 안식일 엄수주의가 제4계명을 도덕법으로써 간주하면서 창조질서로써 영원한 성격을 강조하여 일어났고, 동시에 다른 이들은 4계명이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안식을 위한 하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조질서에 그들의 입장을 근거하였다.

2.복음적 주일관

그리스도인들은 일찍부터 주일을 예배일로 지켜왔다. 그 첫 기록은 ‘안식 후 첫날’(행20:7) 드로아에 사는 성도들이 떡을 떼기 위하여 모인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아직도 안식일을 기점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관습을 벗어난 행동임은 틀림이 없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매주일 ‘첫 날에’ (고전16:2) 성도를 돕기 위한 연보를 저축하여 두도록 명령하고 있다. 같은 날을 이야기 하면서도 더 이상 유대인의 달력을 따라 안식일을 기점으로 삼지 않고 매 주일 ‘첫날에’ 라고 부르는 의식의 변화가 온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처럼 중요한 날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성도들은 계시록이 기록되던 1세기 후반에 가서는 “주의 날”(계1:10)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사실로 인하여 그 날은 주님께 속한 날로 된 것이다.³⁾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주일을 지키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주님의

2) 한정배, “안식일에서 주의 날까지”, (도서출판 선교, 1989), P.163.

3) 정근두, “주일성수란 무엇인가?”, (월간 고신 1995. 11월), pp.22~23.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장차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와 동일하다.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에 의해 건짐 받은 사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과 능력의 부활을 통해 임한 구원의 그림자요 예표인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 짐을 벗음으로 누리게 될 장차 올 안식을 고대하면서 살았다. 이것은 마치 구약성도들이 언제나 제 칠일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영원한 천국에서 쉬게 될 자신들의 안식을 바라보던 것과 같다. 즉, 예수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의 완성됨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놓여 있던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무거운 짐을 지듯이 지키고 있었다. 무엇을 행하다가 이 날을 범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구속이 성취된 날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셨다. 죽음과 부활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써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을 돌아본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죄와 죽음과 현세에 존재하는 그 밖의 모든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가장 많은 갈등을 빚었던 문제가 바로 안식일 문제였다. 예수님 역시 구약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셨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뭇 달랐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2:27-28)".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안식일을 부정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묶여버린 안식일을 풀어서 원래의 의도대로 회복하려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인간이 섬겨야 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으로 보았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2:27).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으로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보냄으로써 시간에 대해 주가 됨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즐겨하시는 일, 곧 창조와 재창조, 휴식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일을 행함으로써 안식일을 ‘즐겁게 누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금지했지만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서 취하는 휴식의 한 형태였다. 예수님을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가 태동한 때는 이 같은 치유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분개한 이후라는 사실을 마가는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으며(막3:6), 요한은 더욱 뚜렷하게 이를 지적한다(요5:18).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의 숫자로 볼 때, 의도적으로(!) 치유사역을 그날에 집중적으로 하셨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이 한가지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며,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날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히4:10-11).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서 감미로운 휴식을 취하지 않고 안식일을 자기가 성취해 내는 개인적인 과업으로 보는 강박 관념에 눌려 있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구원의 모형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과 대조되기는 하지만 양자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복음의 중심이 되신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고 하셨다.(마5:17) 그러므로 안식일의 율법은 결코 폐지된 것이 아니며 복음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율법에서의 안식일과 현재의 주일은 분명히 구별된다. 요일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분명히 구별된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주신 날이라면,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안식을 주신 날이다. 그러나 안식일의 본래 의미와 주님의 새로운 해석을 고려한다면 그런 차이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을 대조하거나 둘 사이의 연속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날을 지키는 성도들의 동기와 마음 자세이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롬14:5)”⁴⁾

3. 신약에 나타난 주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바로 전 날에 제자들은 유대적 안식일로 쉬었다.⁵⁾ 그러나 부활 후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마지못한 선택으로⁶⁾ 또는 유대화 하는 이단자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로⁷⁾, 혹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구절들을⁸⁾ 제외하고는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의식 법을 지킨 것에 관한 뚜렷한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지속적인 습관이라기 보다, 다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걸림들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⁹⁾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사도 시대의 주일 준수에 관하여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유대 안식일을 준수하던 습관이 점차적인 단계를 거쳐 주일 준수의 습관이 널리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을 띠는 것 같다.

4) “주일성수, 정신은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도서출판 한세, 일하는 제자들, 1997년2월호), pp.34~35.

5) 눅23: 56

6) 롬14 : 5

7) 갈4 : 9-11

8) 행13: 14, 42, 44 ; 17: 2 ; 18: 41

9) 고전9: 19-23

반면 바모섬에서 본 요한의 기록은 특별한 것을 보여준다. 네로의 통치(66년경)나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말엽에 (95년경)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첫 환상은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일요일을 가르킨다고 주장한다. 이 결론은 초기의 비 정경적 기독교 저작들에서 주일이란 말이 자주 일요일을 가리켜 사용되는 용례에 의해 확실히 되고 있다.¹⁰⁾

그리스도의 부활과 제자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신성하게 된 날에 사도 요한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사도 요한이 전에 죽었으나 세세토록 살아 계신 ‘산 자’의 앞에 섰드러졌었는데 그러한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의 날’을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주님을 기억하는 신성한 날로 지킬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 준 것이다.

B. 주일성수의 신학적 고찰

1. 초대교회의 주일관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화되는 과도기에 초대 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도행전 20:7절은 주 첫날에 이루어진 드로아에서의 모임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떡을 떼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신자들의 모임을 위해서 ‘주 첫날’이 지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한 명령에서도 확실해 지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그 동일한 지침을 갈라디아 교회에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전 16:2)

10) Didache 14: 1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언급은 요한계시록 1:10절에 있다. 여기에는 신약성경에 오직 한번 언급되는 주일이 언급되어 있는데 외부적인 증거로 볼 때 ‘주 첫날’이 분명하다. 이 용어의 헬라어는 κυριακῆ ἡμέρα 인데 여기에 사용된 κυριακος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오직 2번 나타나는데 “주님께 속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형으로 그리스도에 관계된 유일한 명칭이다. τοῦ κυρίου라는 속 격 대신에 형용사형이 사용된 것은 τοῦ κυρίου는 ‘παρουσία τοῦ κυρίου’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 대한 간접적인 관계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¹¹⁾ 또한 이 κυριακῆ ἡμέρα라는 용어가 사도 요한 시대에 사용되어 지고 있음을 볼 때 ‘주 첫날’의 준수가 이미 초대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초대 교부들의 작품에도 이러한 사실은 잘 반영되어 있다.¹²⁾

Tertullian은 그의 2세기 말엽의 작품(De Orat. C23)에서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든 근심케 하는 일들을 삼가고 악마에게 빠지지 않기 위하여 세상일을 잠시 제쳐놓아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주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지켜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Ignatius는 사도 요한이 죽은지 15년이 안되어 Magnesian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7일째 날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며 산다. 그 날에 우리의 생명이 그의 죽음에 의하여 다시 소생함을 얻는다’라고 말하여 주일성수가 기독교인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¹³⁾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예배의식과 신앙 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제2세기경의 문서인 디다케(Didache)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첫날인 ‘주의 날’ 즉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을 특별한 날로 알아 떡을 떼며 감사를 올렸다”¹⁴⁾고 기록하고 있다.

11) G.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T. Vol.III. (Eerdmans, 1974), p.10.

12) 임준표, “주일 신학의 개론적 고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84), pp. 38~39.

13) 임준표, Ibid., p.39.

14) 나종구, “주일성수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원, 1986), p.22.

a. 날짜가 바뀜

오순절 이후 신약교회는 한 동안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계속 지켜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초대 교회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과 예배에 익숙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모이는 곳(예루살렘)에서도 가르쳤고(막14:49), 그들은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 (행2:46, 눅24:53)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초대 교회 교인들과 유대인 들과 다른 점은 초대 교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초대 교인들은 다시 그들끼리 모였다. 장소는 가정 이였다. 어느 때는 다락방에서 모였다.(행12:12) 오스카 쿨만 (Oscar Cullman)은 “행2:46과 5:42을 ‘여러 집을 돌아가며’로 번역하여야 한다”¹⁵⁾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내세우지 아니해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 집에 돌아가며 모였는데 한 번 살펴보면 에베소와 로마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모였고(고전 16:19, 롬16:5), 골로새 에서는 빌레몬 집에서 모였고(빌레몬서2장), 라오디기아 에서는 늬바의 집에서 모인 것을 알 수 있다.(골4:15) 이와 같은 모임은 매주 첫날에 있었던 것이다.(고전 6:2)

안식일을 버리고 첫째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부활 사건에다 근거를 둘 때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날을 기념할 진 데 어찌 구원을 완성한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때에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뜻이 있다. 그리하여 찰스 핫지(Charles Hodge)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구히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법이다”라

15) O. Cullman, Early Christian Wo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8), pp. 9-10.

고 했다.¹⁶⁾

b. 사도시대의 주일성수

주후 29-100여년 간을 사도 시대라고 지칭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은 고전 16:2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주 첫날에 연보를 저축해둘 것을 명령했고, 행 20:7에 매주 첫날에 기독 신자들이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고 하는 사실과 계1:10에 사도요한이 ‘주의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등이다.

2. 바울의 주일관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복음서한에서 안식일에 대해 단 한번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도 단지 골로새서 2:16에서 안식일 문제를 책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 첫날로의 변경은 사도들의 승인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자신의 인정을 받은 구속사의 결론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바울은 주일과 관련하여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첫째, 행20:7-11 바울의 드로아 방문.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

16)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Ⅲ,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60), p. 330.

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 지라 바울이 내려가
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
니라”

본문에서 ‘우리’로 기록된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목격
자의 보고에 따른 것이다. 등불을 많이 켜다는 언급은 저자의 상상을
자극한 것으로 정확한 역사적 기억을 표현한 세밀한 부분이다. 우리가
연구할 중심 구절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συνηγμέντωνξ ημων κλασ
αι αρτον)인데 이 구절은 공식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모인다는 동사
는 예배를 위한 집회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용어이며 “떡을 떼다”는 표
현은 특히 기독교 신자들의 식사를 나타내는 말로 초대 교회 기독교 문
헌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미 잘 알려진 형태로 구
성되어 있던 기독교 신자들의 집회를 묘사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모임의 특별한 면은 곧 떠날 예정이어서 고별사를 새벽 시간
까지 길게 한 바울이란 사람이 참석했다는 것뿐이다. 본문에서는 바울
이 다음날 그의 여행을 계속하기 원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첫날에 모인
것이라고 하는 기록은 없다. 단지 그 형제들은 떡을 떼기 위해 모였고
바울은 이튿날 떠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강론을 새벽까지 계속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한가지 정확하지 못한 문제는 집회 시간에 관한 문제이다. 분명히
저녁 집회였지만 토요일 저녁인지 주일 저녁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유대인의 관례를 따른다면 저녁 집회는 토요일 저녁에 있었을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이 견해를 택하고 있으며¹⁷⁾ 새영어 성경(N. E. B)은 이

17) A.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III
(Nashville: Broadman Press), pp. 338-339.

것을 토요일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드로아는 이방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이 의미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한복음 20:19절에서 첫 날은 아마 토요일 저녁을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일요일 저녁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구절은 부활한 날 저녁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최초의 만남과 한 주의 첫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2세기와 3세기의 확립된 교회 관습 사이의 연결선을 제공해 준다.

최초의 주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그리고 그 후 세대들에 속하는 제자들의 만남의 사건이 모두 일요일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위의 사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성경에 관한 강론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드로아에 도착하여 거기서 7일을 머물렀고 안식 후 첫날에 교인들이 떡을 떼기 위해 모였으며, 사도 바울은 모여든 교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다.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이다.

둘째, 고전16:2에 매주일 첫날에 모여 연보를 하고 저축하여 들 것을 명하였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자신이 활동했던 네 지방들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으면서 A. D. 55년경에 성도를 위하여 보내는 연보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 보낼 때 그들에게 본문과 같이 명했다.

2세기경 벌써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은 주일 예배의 정규적 부분이었다. 18) 이와 같은 교훈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은 본문이 가르쳐준다. 이 구절이 주간의 첫 날에 교회의 집회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지는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이 구절은 일요일이 종교적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날로서 간주되었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날로 여겨졌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관한 구약 율법을 해석하면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구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듯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혹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롬14:5). 안식일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14:6~7). 안식일은 이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모든’날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그들 다’가 될수도있다. 19)

이런 개념은 바울이 독자적으로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해석한 결과였다.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일종의 의무사항으로 전락해 있었다. 당시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안식일을 유지하고 세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금지 사항으로 안식일을 둘러쌌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짜내려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를 위해, 또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므로써’ 얻는 혜택을 위해 인간이 섬기는 것이 되고 말았다.

18) Justin Martyr, First Apology 67장 성서대백과 Vol7, 정인찬편, (서울: 기독지혜사 1981), p. 582.

19) R. Paul Stevens, 「Disciplines of the Hungry Heart」, (역:박영민,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IVP, 1998), p.236.

3. 초대교회 예배의 형성과정

a. 주일에 대한 교부들의 견해

사도요한의 제자이자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2세기 초엽에 마그네시 여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유대교적 배경을 지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새 희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주일에 우리들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용솟음 쳤다.”²⁰⁾

2세기 초엽에 기록된 기독교 예배의 지침서인 ‘디다케’는 주일 예배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너희의 제사가 순결하게 되도록 너희의 범죄를 고백한 후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시오”²¹⁾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3세기 중엽에 「일요일이라는 날」에 모이는 기독교 집회의 예배 순서를 기술하고 있다. 그 순서로는 성경봉독, 설교, 기도, 주의 만찬 의식 그리고 봉헌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스티누스는 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일요일에 모이는지에 관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둘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도 바로 이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²⁾

20) Magnesians 9: 1-3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14, 박근용의 5인 (서울: 기독교문사 1983), p. 117.에서 재인용

21) Didache 14:1

22) Justin, First Apology 67 장.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14 박근용의 5인 (서울: 기독교문사 1983), p. 118.

리용의 주교 이레니우스는 A. D. 178년 로마의 주교에서 부활절이 일요일에 축하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적 문제에 관해 편지를 써 보냈다. “주의 부활의 신비는 주일 이외의 다른 어떤 날에도 축하되어서는 아니 됩니다.”²³⁾ 테르툴리아누스는 3세기 초엽에 위대한 변증가로서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들은 안식일이나 다른 유대교 축일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축일들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의식들, 예컨대 주일과 오순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²⁴⁾ 하지만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방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독교의 일요일 준수와 휴일로서의 유대교의 안식일 준수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진술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또 다른 저작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들은 주의 부활의 날에 무릎을 꿇는 것뿐만 아니라 일체의 근심거리를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악마에게 어떠한 자리도 주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사업까지도 중지해야 한다.”²⁵⁾

테르툴리아누스는 일요일에 노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최초의 기독교인 저자였다. 하지만 그는 안식일 계명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주일을 예배일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

3세기 전반에 살았던 오리게네스는 일요일의 준수를 영적으로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특정한 날들, 예컨대 주일과 같은 날들을 늘 준수한다는 문제 때문에 반대를 받는다면 ... 나는 완전한 기독교인에게는, 즉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의 주님이신 말씀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의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며 따라서 그는 항상 주일을 지키고 있다” 라고 대답해야겠다.²⁶⁾

23) Ibid.

24) Ibid.

25) Ibid.

26) Ibid.

이상의 모든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예배일로 '주의 날'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주의 날'은 이제 예배일로서 확고히 자리를 굳혔다.

b. 초대 교회의 주일 성수

(1) 성만찬

성만찬은 처음에 저녁 식사였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29 - 3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저녁 식사 때였고 그 직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타나는 성찬식 집행이 있었던 예배는 틀림없이 저녁 예배였다. '많은 등불'과 '밤중'이란 표현도 이 점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후에는 이것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신약은 성찬식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바뀐 데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비록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그들이 일찍이 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받아 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아침에 모인 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특히 이날이 주일이였다면 더욱 그러하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때는 아침 9시경이었다. 이때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었다.

(2) 성경 낭독

기독교회는 허공 가운데 예배의 기초를 놓지 않았다. 확실히 교회의 많은 관습들은 기독교 이전의 유대적 전통과 특히 회당 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회당에서는 아침 예배가 있었고 오후에는 종종 강론을 곁들인 짧은 예배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율법과 선지서 같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일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시편을 인용한 일정한 기도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영향의 전부 혹은 일

부를 초대 교회가 물려받은 것이다. 구약 성경에 대한 초대 교회의 관심은 신약성경의 도처에서 나타나며 클레멘트 제1서와 바나바서같은 초기 문헌에도 나타나는데 특히 구약에 나타나는 증거와 관련하여 그러하다. 따라서 예배 드릴 때 구약을 읽고 해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었을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을 때 사도들의 편지도 읽혀졌을 것이다.²⁷⁾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긴 편지를 읽으려면 적어도 한시간 이상이 걸렸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거의 두시간 가량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편지의 내용 전체를 다 듣지 않고는 아마도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자비를 베푸는 일

초대 교회는 주일에 또 다른 일을 행하였다. 함께 모이고 또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 이외에 정규적인 자선 사업을 일찍부터 실천하였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2절에 보면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다. 즉 한 주간의 첫 날에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으로 헌금을 따로 저축해 두었던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일 예배 때의 정규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봉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에서 저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배시에 있을 봉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주일과 관계가 깊다는 것이다. 초대 교회에서의 친교는 예배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나누어 갖는 일 특히 가난한 자들과의 공유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순절 직후부터 교회에서 일어났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²⁸⁾ 이것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유무 상통하던 실례를 우리에게 명백히 제시해 준다.

27) 골4: 16, 살전5: 27, 계1: 3.

28) 행2: 44- 45

병자와 노인과 빈자에 관한 관심 뒤에 숨겨져 있는 사상은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교제하는 날인 주일에는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4) 세례, 위임식, 권징

저스틴의 ‘변증’에 세례는 주일 아침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행하여 졌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시기 한 장소에서 시행된 관습에 불과하다.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는 주일 새벽에 세례가 베풀어 졌으며 감독과 기타 다른 직임이 주일에 주어졌다고 한다. 성직 수입에 관한 면접과 선거가 있는 후에 해당자의 임명에 관한 승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주일에 행해지지 않았다면 그 이전 어느 날에 행하여졌을 것이다.

주일에 행하는 기독교적인 또 다른 관습 중의 하나는 교회 권징에 대한 문제이다. 고린도 전서 5장4절 이하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범죄한 교인에 대한 권징을 실시하였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회중이 모여야 하는지에 관한 언급이라기 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모였을 때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특히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교회는 정규적인 기독교인의 모임을 의미한다.

C. 개혁자들의 주일 관

중세로마 카톨릭 교회가 제정한 주일 성수는 거미줄같이 얽혀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게 되었다. 예를 들면 A. D 1362년 영국에 공포된 이스라엘의 율령 제3호에는 다음과 같은 날에는 칸다베리 구내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명한 날은 . “주님의 성탄일, 성스테반 기념일, 요한 기념일, 순교자 도마 기념일, 3일 동안 계속되는 부활주일” 외에 30가지이상의 성일 들이 제정되어 있었다.²⁹⁾

뿐만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 규정에 의하여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강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개혁자들은 안식일 성수가 구원에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골2:16) 구원의 문제를 날과 절기에 연관시키는 것은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종노릇 하는 결과이며 은혜의 복음을 헛되게 할 것이라(갈 4:9-10)는 것과 이날을 중히 여기든지 저 날을 중히 여기든지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롬14:5)는 사도 바울의 주장을 내세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까지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요일을 반드시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미신적 이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1. 칼빈의 주일관

칼빈의 신학 가운데 주일 성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 제2권 제7장이다. 여기서 칼빈은 십계명을 순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을 기독교강요의 초판과 그 이후의 증보판을 비교하여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계속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칼빈은 다른 글들에서도 별다른 첨가를 발견할 수 없다. 30)

칼빈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제4계명은 다른 계명의 의식적인 요소들이 4계명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계명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는데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이전에 걸쳐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가장 철저히 지켜온 의식적인 예고적 측면은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이다.31) 오직 예수가 본체시며, 그가 나

29) A. h. Lewis, A Critical History of Sunday Legislation, (New York : 1888), pp. 87-88.

30) 김재성, "칼빈의 주일 성수에 대한 견해", (월간 고신, 1995.11월), p.27.

31) 주: 칼빈은 "예식적"요소로 영원한 안식과 구속적 안식의 상징이며, 예표와 구현으로서 매주 특정한 날을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셨다.

타나실 때에 그림자는 버려지기 때문이다. 즉, 그는 안식의 진정한 실현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다른 곳에서 안식일은(골2:16)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한다.(골2:17).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실상의 바로 본체 시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잘 설명하였다. 이 일은 어느 하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있을 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날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³²⁾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이 거룩하고 동등하며,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체 날들의 구별을 철폐하고 매일 모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에 칼빈은 교회내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대책으로서 이용하기 위해 실현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³³⁾ 하지만 한편으로 칼빈은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날에 엄숙히 모이는 교회들도 미신(날을 위해 거룩히 구별하는 율법적이고 비 복음적인 것)만 없으면 나는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을 생각할 때에, 거기는 미신이 없다고 할 것이다.”³⁴⁾ 그러므로 날에 대한 외적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약 시대의 한 날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폐지되어졌지만 안식일의 “내적인 실재”는 여전히 신약시대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기독교 공동체 안에 남아있고 이 내적인 실재란 은혜의 실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휴식과 안식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안식일로 상징되어진 이 구속적인 휴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가 되어졌고 외적인 형식의 안식일 준수는 구속적인 상징의 의미를 지녀왔던 과거의 개념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어지고 만 것이다.

3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역: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공역, 기독교 강요 상권, 생명의 말씀사, 1988), p.562.

33) Ibid., p.563.

34) Ibid., p.564.

따라서 칼빈은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지정함으로써 안식일에만 반드시 정규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고 말하지 않지만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지정함으로써 제4계명은 공동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에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루터의 주일관

제 4계명과 안식일 제도가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종교 개혁자들의 답변은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부분 더욱 앞서서 생각을 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중세기의 유대교 개종자들이 범한 안식일 주의의 과오 즉 날을 위해 구별하는 율법적인 태도를 피해 보려다가 결국은 안식일 계명이 기독교의 예배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언하여 안식일 주의자들과 정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중세 때에는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의 ‘聖日’이 있었기에 그 날들을 피하기 위해서 라는 점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종교 개혁자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대한 갈라디아서의 경고(4장10절)를 주의하고,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 전통의 요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갖게 된 자유는 모든 날, 심지어 주의 날을 지키는 것까지도 중요치 아니한 방편적인 문제로 만들었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만한 일이다.³⁵⁾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어디서든지 주일을 단순히 주일이란 그 날을 위해 거룩히 구별해야 한다면, 만일 어디서든지 유대교적 근거에 입각하여 그 날을 성수 해야 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주일에도 일하고, 말도 타고, 댄스도하고, 연회를 베풀고 기독교인의 자유를 침식하는 이 같은 제도를 없애기 위한 무슨 일이라도 하라고 명하

35) PAUL K. 「JEWETT, The Lord's Day」, (역:옥한음, <주일의 참뜻>,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pp. 107~109.

겠습니다.”³⁶⁾

이 문제는 칼빈도 비슷한말로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초대 교부들은 습관적으로 이 계명을 그림자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른 표상들과 함께 폐지된 한 날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³⁷⁾ 안식일을 고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자신에 관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7이란 숫자에 매달리지 않으며 어떤 미신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면 집회를 위해 다른 어느 날들을 엄숙히 구별해서 지키는 교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다. 칼빈은 제 7일 되는 날을 지명했다는 것 외에는 제4계명 안에 의식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아직도 그 계명의 도덕적 부분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곧 7일중 하루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한 때 유대교적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들게 한 자들을 불평하였다(Albertus Magnus와 Thomas Aquinas등이 그렇게 가르쳤다.)³⁸⁾

주의 날에 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는 그들의 사견이 아니라 루터파와 개혁파에서 신앙고백문의 형태로 나온 것이다. 가장 영향력이 큰 루터교 신조인 아우스벌크 신앙고백에는 복음에 의해 안식일이 폐지되었으므로, 필연적인 요구 때문에 성수해야 할 날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언제 모여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어떤 날이 필히 지정되어야 한다고 했다.³⁹⁾ 스위스의 신앙고백문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제2헬버틱 신앙고백도 같은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다.⁴⁰⁾

36) 대요리문답, 제4계명.

Ibid., p.109.

37) 기독교 강요 II, vii, 28.

38) Ibid., II.viii.

39) Article VII,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40) “성일과 금식과 육식에 대하여,” Ch. XXIV.

이 모든 고백 문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일에만 빠져 신앙생활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중예배를 위한 어떤 정한 시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개혁자들이 주일을 임시방편적인 습관으로 과소 평가 함으로서 말시온파의 편에 서서 과오를 범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회 유산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즉 구원역사의 발전과정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일의 완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원 역사의 통일성 즉 신약시대 교회 안에 있는 안식일 적 시간구분의 계속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그 날'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있었다는 것을 염두 한다면 칼빈이 가끔 세상일을 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과 감정과 모든 정욕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이 형식적인 의식을 행하므로 우리다운 행동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유로이 묵상하기 위하여'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숙고하는 훈련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일에 몰두하여 점점 더 그 은혜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관심사와 일들을 한쪽으로 밀쳐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순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의 일들을 명상하는 날로 보냈을 때에는 나머지 한 주간의 생활을 통하여 안식일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⁴¹⁾

즉 칼빈은 예배생활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한

41) Fairbairn의 *The Typology of Scripture* (New York, 1911), Vol. II, pp.455~456에 인용되어 있는 십계명에 관한 제네바에서의 설교문.

안식일은 세상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지정함으로써 제4계명은 공동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칼빈은 안식일에만 반드시 정규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규칙적인 모임이 있음을 알게 된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루를 정해놓고 모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듯이 신약의 교회들도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모든 일은 질서대로 하고 규모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즈빙글리도 루터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그는 “만일 우리가 주일을 일정하게 정해져 버린 어느 날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의식에 얽매 이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안식일 제도의 목적과 본질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신적이고 의식적인 부분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혁자들은 주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 생활에 절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좀더 엄격히 쉬는 날에 대한 해석을 내려 제네바의 시민들로 하여금 주일 아침에 모여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이 영향으로 칼빈주의 교회들은 규칙적인 아침 예배와 더불어 저녁예배 때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강론했다.

요한 낙스도 이와 같이 했는데 안식일을 온 마을에서 오전 오후에 엄하게 지켜야 했다.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시험을 치르고, 세례를 주고 했다. 또 칼빈은 시민들에게 일요일을 나태하게 보내지 말고 평상시 사업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영적인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라고 강론을 했고 안식일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을 동의 하지만 구약에 속한 그림자와 창조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쉬는 날에 대한 영구한 구별을 명확히 했다.

3. 신조에 나타난 주일관.

종교개혁 시대의 주일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채택된 신조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고 주일 준수의 특성과 의무에 여러 집단의 의견을 반영시킨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a. 스위스 신앙고백 “제2헬버틱 신앙고백”(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서

신앙이 시간과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간을 적절하게 구별하여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 신앙은 성장도, 단련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공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하여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찬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어떠한 일정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 함으로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b. 아일랜드 종교 신조(1615년 제정)

56조에 “주중 첫날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위해 전적으로 받쳐야 할 것이다.”⁴²⁾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신학적으로 아주 발전된 주일 성수관을 밝히고 있다.

c.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제 21장 7항에 기록하기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레(7일)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42) The Irish Articles of Religion, 56, The Creeds of Christendom, III, ed. by P.Schaff (Grand Rapid: Baker Book House, 1966), p. 536.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 졌다. 성경에는 주의 날로 불려져 있다. 이날은 세상 끝날 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은 하루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 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 공적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⁴³⁾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강조되는 주일성수의 엄격한 적용은 청교도들의 전통에서 나왔다. 그들은 주일성수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뚜렷한 형태의 주일성수하는 행동양식을 보여주었다. 주일성수의 엄격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 이날 청교도들은 안식의 의미와 성격을 독특한 윤리적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이상과 같이 종교 개혁 시대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중세 교회의 율법적 내지 미신적 제도와 싸워야 하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을 주일로서 지키는데 있어서 분명한 제시를 해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후기에 와서 여러 차례 종교회의와 신앙고백 채택을 통하여 첫째 날로서의 주일 성수가 정착되고 주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밝혀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과 청교도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칼빈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창조의 활동을 마치시고 쉬심으로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모두 포괄적인 예

43) Williamson G. I., Westminster of faith with Original Text (Philadelphia: Reformend publishing Co, 1965), p. 170.

로 삼으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칼빈은 안식일을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예표적인 성격이 강하며, 특히 그들이 강조했던 제사적인, 상징적인 중요성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안식일의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계승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칼빈에게서는 교회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서 주일성수가 강조되었고, 여기에는 보다 많은 자유와 영적인 유연성(freedom and flexibility)이 있었다. 칼빈이 가장 강조한 것은 주일은 영적인, 구원적인 안식이 있는 날이라고 보았고,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청교도들은 주일을 창조의 질서에 명령이 되어진 날로 보았고 이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명령으로 이해하였다. 청교도들은 특히 주일 이외에는 어떤 날도 성별 되어진 날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요약이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만약에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율법적인 차원이나 날을 신성시함으로써 마치 그날만이 거룩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신적인 요소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D. 주일의 목회학적 고찰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문제는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주일성수가 무너질 때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성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미 흔들리는 정도를 넘어섰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면 주일을 온전히 지킨 것으로 알거나, 많은 교회가 저

녁예배대신에 오후예배를 드리는 추세 속에서 예배가 끝나면 식당과, 자신의 오락과, 여가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주일에 대해서는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단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일에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주일은 단 한번 예배드리는 날로 전락되고 나중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에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전파된 유래는 1885년 미국 북장로교회의 언더우드목사와, 미국 북감리교회의 아펜젤러 목사와, 1889년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회의 데비스와, 1982년 미국 남장로교회의 레아놀드... 등의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되어진 것이다.⁴⁴⁾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한국에 전도한 선교사들의 신앙은 주로 청교도적이요, 성경을 외고집 하는 칼빈주의적 엄격성을 띠고 있었으니 자연 한국교회는 그 초기부터 주일 성수를 강조해 왔다.⁴⁵⁾

즉 기독교의 교리적 실천의무의 하나인 주일성수는 청교도 적이고 보수적인 신앙태도가 선교된 한국교회 내에서 두드러졌다. ⁴⁶⁾ 주일에는 예배 외에 어떤 행사나 회합에도 참여하지 않고 모든 일을 중단하며 오직 기도와 성경 읽기 등으로 보냈다. 그러나 기독교적 문화구조가 정착되지 못한 일제 시대에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주일성수의 위협을 받았고 여러 갈등을 수반하기도

44) 채기은, 「한국교회사」, (서울: 예수교 문서선교회, 177), pp. 49-50.

45) Henry H. Halley, 「성서핸드북」, 박영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0), p.874.

46) Henry H. Halley, 「성서 핸드북」, 박영조역, (서울: 기독교서회, 1980), p. 874.

하였다. 특히 농민의 경우 농번기의 주일 성수는 여간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산주의 위협 이전의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주일 성수의 위협을 받지 않았다.

앞에서 거론 했듯이 해방 이후 북한의 공산정권은 각종 행사나 주민 동원을 주일에 강제로 행했고 마침내 1946년 11월 3일 주일에 총선거 일로 정하고 참여를 강요하였다. 이에 북한 5도 연합 노회는 교회탄압 전망에 대한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첫째, 주일성수를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이외의 어떠한 행사도 참가하지 않는다.

둘째,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셋째, 교회의 신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의무요 권리이다.

넷째, 현직 교역자로서 정계에 종사할 경우에는 교직을 사면해야 한다.

다섯,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⁴⁷⁾

그러나 공산당국은 선거를 강행했고 기독교연맹이라는 어용기구를 만들어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말살시켜 갔다.⁴⁸⁾ 한편 남한교회에는 엄격한 성수주일의 수행여부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학계열을 구분하는 한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한 과문이 조선 신학교에서 일어났다. 보수적 신학입장을 가졌던 일부 학생들은 김재준 교수의 강의 내용과 주일성수에 대한 태도, 학교경영 방침 등에 대한 불만을 1947년 대구에서 열린 제 3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진정서로 제출하였다. 그중 성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일문제에 대하여 신학생중 이일선 군이 제작

47) 박안전, 「한국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pp. 195-196.

48) Ibid., p. 96.

한 ‘이상촌’중에 농촌교회에서는 농번기에는 새벽과 밤에 예배보고 낮에는 부득이한 일을 해도 죄될 것 없다 라는 구가 있는데 이 책은 김재준 목사가 교정하고 서문까지 썼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난 4월 10일 학생간에 물의가 일어나 교내에 큰 파문이 일어났을 때에 김재준 목사는 ‘저자가 제 의견에서 쓴 것인데 무슨 시비냐’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 하등의 학교당국으로서의 실제적 해결이 없는 것”⁴⁹⁾

이후로 분열된 장로교회의 보수측 교단에서는 주일 성수의 규율을 엄격히 고수한 바 있고, 더욱 신앙경건의 문제를 중시하여 분파하였던 고신 파에서는 대단히 중요시하였다. 또 다른 보수 교단인 재건 교회 역시 주일성수를 철저히 고수하였는데 심지어 주일에 전기 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교회가 분열되는 사태까지 있었다. 이들 보수주의 교회는 주일에 매매행위,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다소 율법주의 적인 교리를 지켜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에서부터 주일성수에 대한 엄한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한 주일을 성수 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믿고 순교를 각오하고 주일을 성수해 왔으며 아직 까지도 대부분의 교단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명시된 주일 성수를 표본으로 삼고 있으며 지도자들은 경건한 주일성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현대의 주일

해방이후 남한교회가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사회의 경제 활동이 전환되면서 많은 주일 성수에 관련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

49) 김양선,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 (서울: 예장종교 교육부, 1956), pp. 216-222.

었다.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아 농촌을 이탈하여 도시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과의 갈등 및 군사정부 시절에는 국가행사와 각종 시험 등이 주일에 치러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졌다. 급기야 1961년 7월 한국 N. C. C는 정경위원회의 결의로 “주일행사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고, 1970년에는 향토예비군의 주일 훈련 반대를 위한 교회전체의 여론 규합과 그 시정건의가 진행된 바 있다.⁵⁰⁾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한창 무르익던 90년대 초부터 많은 교회들이 월요일에 피곤치 않게 한 주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주일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성도들의 편의를 문제삼아 저녁예배를 없애고 오후예배로 돌리면서 그나마 저녁까지 교회에서 보내던 많은 일꾼들조차 오전 예배 후 바쁘게 점심 식사를 한 후에는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교회의 주일의 의미가 많이 하향 조정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대내외적으로 주일성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주일성수에 대한 경건한 신앙도 급격히 퇴색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일 예배 출석현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주일 대예배 출석률이 70%, 60%이하로 떨어지고 주일오후예배는 10%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큰 교회일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경건한 신자들까지도 주일 낮예배 한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주일 성수를 다 했다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개 교회도 성장위주형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일 오전 11시 예배의 머리숫자만 늘어나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통계수치에 연연하고 그들이 주일날 여전히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머물러야 하는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하여 보면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으며 여전히

50) 전상일,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목회학적 고찰”,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8), p.100.

국가고시와 각종 보충수업 및 사교육의 증가도 주일날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우 상황이 어려운 시점인 것이다.

주일성수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교인들이 주일성수를 위해 육신적인 것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는데 있다. 말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은 너무나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상대적으로 등한히 하고 있다. 기독교신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때때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되는 희생을 원치 않으며 회피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들자면 단연코 '교회성장제일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인들을 과감하게 권징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지 않으며 어떻게든 교회의 교인으로 확보하기 위한 교회행정의 문제점이 큰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진정한 의미에서 주일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주일날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옳은 가도 고려해야 한다.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변하였다. 개인주의가 편만하고 교인은 부담스러운 것을 싫어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을 받아주기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일날 예배이외에 다른 것은 주일성수의 참된 의미에서 반대되는 것인가? 의 문제이다.

3.정보화 시대의 주일

한국이 I. M. F체제아래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보다 직업환경의 재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많은 부실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산하였고 산업의 구조가 정보화 산업형태로 바뀌면서 많은 직장과 직업이 새로 탄생하였다. 직업의 현상이 많이 달라진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가 복잡해

지면서 주일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다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획일적인 방식으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경사회나 산업화시대에는 대부분의 여성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가 많았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는 여성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지금의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사회현상이 달라져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앞에 있는 젊은이와 직장인들 중 일부는 시간에 상관없이 일하고 있으며 요일에도 개념치 않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들 특히 인턴이나 레지던트 그리고 간호사들은 주일을 매번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직업의 성격상 주일을 아예 지키지 못하거나 정규적으로 지키기 힘든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직업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다. 산업화나 농경사회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대도 전통적인 교회는 이런 변화된 사회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옛 관습을 그대로 지키도록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주일을 지키기는 힘들어지고 급기야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를 낡은 전통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풍조를 낳게 되었다. 주일에 관한 이 두 가지 상반된 현실을 보면서 주일 성수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세속화로부터 보호하는 길인 동시에 교회가 현재에 늘 서있도록 갱신하는 것이 개혁주의라고 판단이 되었다.

4. 주일성수와 상황의 문제

주일 성수에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이해가 맞서고 있다.

첫째, 과학을 말하는 자는 주일이 문명의 진보를 저해한다고 비

난하였을 뿐만 아니라⁵¹⁾ 현대에 이르러 그 개념은 크게 약화되어 심지어 경시하는 경향으로까지 발전하였다.⁵²⁾

고대의 미개했던 사회와 비교하여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규정으로 공격하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편리주의는 오늘날 예배일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악으로 보인다.⁵³⁾ 그리하여 현대인들은 주일 개념을 한낱 유대인 전통의 구습으로 돌리고 시대에 맞는 세련되고 합리적인 재해석을 시도하였고 이 문제는 종종 주일성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둘째, 주일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킨 것 이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책임을 강조하면서 주일의 올바른 성수는 교회 질서를 위하여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신학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의 장벽이 무너졌고, 날의 구분이 폐지되었음’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억을 해야 한다.

오늘날 주일과 직업문제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예배하는 기독교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들의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면 그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그날을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때때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소위 노는 날로서 정해진 일요일의 개념이 지금은 직업별, 상황별로 파괴되고 있다. 즉 1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자세가 주일 성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면

51) 내촌감삼, 「출애굽기」, 성서주해전집②, 이성호역 (서울: 혜문사, 1971), p. 211.

52) 김대석, “안식일과 주일문제”, (석사학위논문, 고려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4), p. 85.

53) 이순경, 「십계명 해설」, (서울: 기독교문사, 1981), pp. 75-77.

그날이 모두가 노는 날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제7일을 의미하는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와 구속의 사건이 또다른 하루를 구별하여 율법과 같이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이다. 다만 창세기의 십계명에 이미 언급되어있는 도덕 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인간의 휴식과 재충전의 의미에서 7일 단위의 휴식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모이는 날에 모여야 함으로 다원화, 정보 화되어 직업의 현장에서 일요일의 개념이 파괴된 현실을 외면한다면 기독교인들의 직업현장은 지켜질 수 없을 것이며, 선교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가능한 한 모든 날 중에 모두가 모이는 날을 한 주간에 하루로 구별하여 주님의 날로 정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5. 일요일이란 명칭 사용에 대하여

“주일” (κυριακή ἡμέρα, 계1:10)이라는 기독교 명칭이 기독교 역사의 아주 초기에, 심지어는 1세기 말 전에도 하나의 술어로서 나타나지만 그 가장 오래된 명칭은 “주의 첫날”이다. 이것은 ἡ μία τοῦ σαββάτου의 관용적인 번역이며, 글자대로 번역하면 “안식일의 첫날”이며(고전 16:2, 행20:7), 이는 안식일에 의해 정해진 일련의 날들 가운데서 첫째 날이라고 의미했다. 그리고 이 관례는 유대인들의 기독교 사회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 16:2과 사도행전 20:7은 이방 교회들의 관련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의 주단위 구분은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리스-로마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본토(非本土)안식일적 시간구분은 권위 있는 사도들의 전통이나 그들에게 전해진 교훈의 본(롬6:17)의 일부로 이방 기독교신자들에게 전해진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쉬렐(E. Schürer)은 초기의 이방 기독교인들이 7일로 된 안식일적 시간구분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일 주일 중 몇몇 날에는 순 유대식 명칭들, 즉 “준비일”, “안식일”, 안 식후 첫날“ 안 식후 둘째날”등의 명칭을 붙였다고 하는 정성들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대식 명칭들은 헬라 교회의 모국어가 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일요일이란 이름을 제일 먼저 사용한 기독교 작자는 저스틴(Justin)이었는데 그후 150년, 황제에게 보내는 그의 변증서 제1권(67, 37)에서 기독교의 예배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는 기독교 신자의 예배들을 “소위 일요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관례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지로라도 그의 군주인 황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이었다. 그래서 이 본의 아닌 태도가 그후 여러 세기 동안 공식적인 신학적 발표문에서 “週日 첫날”이란 성서적인 명칭을 억제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흑성주간의 명칭들이 만들어지자마자 기독교 세계에서까지 곧 대중적인 용어가 되어 버렸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자 기독교 신학은 그 말을 빛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재미있게도 사도신경의 “지옥에 내리 사”(descendit ad inferna,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이 말이 빠졌음)는 이 빛의 상징적 표현과 서로 얽히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아침에 솟는 태양처럼 새로운 영광 가운데서 승천하기 위해 지는 해와 같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창조기사를 설명하는데도 일요일이란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첫날에 빛을 만들었다는 것과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던 것이다. 찬란한 영광 중에 승천한 후 그리스도는 지금 그의 진리로 우리를 비추고 있고 영원토록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일요일에 재림한다는 전통이 세워지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에 서서 기도를 하되 동쪽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했다. “주의 날”이란 이름이 기독교 문헌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용어로 남아 있기는 하나 (라틴어:dies dominicus, 이탈리아: domenica, 스페인어: domingo, 불란스어:dimanche) 주후 4세기이래 일요일이란 명칭은 기독교의 용어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기독교신자의 예배가 가진 본래의 의미에 대해 민감함을 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영국 청교도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다른 어느 견해보다 더 많이 보급되어 있는 청교도의 안식일관은 장로교와 회중교회와 감리교와 그리고 침례교가 다 환영하고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의 과오와 제7 안식교도들의 과오를 둘 다 피하고 있다. 신학적 본질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취했던 입장의 일부라고 하겠다. 청교도의 안식일관은 기독교 예배일의 새로움(newness)을 인정하는 반면, 기독교 시간의 안식일적 구분(the Sabbatical division of Christian time)을 인정하므로 고대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와의 계속성을 확인한 것이다.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계명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레 중 특히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하나님께 기록한 날로 지키게 하였다. 이 날은 창세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이날은 세상 끝날 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

이 고백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비판할 것이 아무 것도 없으나 그 안에는 거짓된 신학적 기교가 들어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계명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레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라고 한

이 부분을 분석하면 그러한 점이 똑바로 드러나게 된다. 이 부분의 논증은 유지될 수 없다. 7인중 한 날을 안식일로 택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계명이란 없기 때문이다. 제4계명을 명백히 7인중 하루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레되는날'을 지정하였을 뿐이다.

딘 알포드(Dean Alford)는 한때 그의 청교도 친구들이 제4계명을 엄격히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분명한 어떤 이유로 지정한 하루를 지키라는 그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공언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이유에서 나온 '다른 날'을 가지고 제4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그의 일을 안식한 날이 이레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 4계명은 그날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청교도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라 해서 '첫날'을 지키는 것으로 이레 되는 날을 대신했다.

즉 청교도들이 제 4계명의 영구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매우 의미심장한 방법으로 그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말이다. 그들은 이레 되는 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계명이 폐지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날과 안식일을 의미 있게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날을 지켜도 제4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기독교인의 양성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일 첫날에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의 중심은 저녁식사의 교제였다. 후에는 아침으로 옮겼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아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나심으로 가지게 된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을 단위로 모였을까? 공중예배와 교제를 위해 형제들이 자주 모일 필요성은 느꼈겠지만 꼭 매 칠일마다 모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성경상 매 주일의 예배는 분명히 유대인들의 안식일적 시간 구분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주일 신학을 구성하는데 고려되었을 것이다. 고대 교부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교회의 관습중 이러한 면

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대인의 안식일과 기독교인의 주일 간의 대조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 간에 유사점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안식일과 주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예배를 통해 주를 기뻐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이 중요한 유사점은 초기의 교부들이 회당과 교회,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는데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아주 무시되어 버렸다. 그들은 단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로부터 해방 받았다는 것만 강조해서 다루었다. 그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된 경우를 복음서에서 찾아 열거한 목록을 확대시켜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투(수6장), 아달라의 안식일 사형집행(왕하11:5) 같은 항목까지 포함시켰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7일중 최소한 '하루'는 그를 기억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기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선언하여 이 의심스러운 점을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저스틴은 말하기를 "새 율법은 당신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끊임없이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소, 그런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겨우 하루를 게으름 피우면서 쉬고는 그것으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거요"라고 말했다.

E. 주일 성수의 실천적 의미

16세기 퓨리탄들은 엘리자베드여왕시대에 이미 주일날 백성들의 오락을 위해서 공적으로 스포츠가 허용된 이래(1583) 줄곧 비판을 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영국국교회에 의해서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 퓨리탄들의 기본입장은 카톨릭주의와 영국국교회자들의 주일의 세속화와 재세례파, 퀘커교도, 다른 이단들의 주님의 날을 버리는 운동, 또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관용함으로 상업도시들이 세속화됨으로 주님의 날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반대하여 강한 주일성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⁴⁾

초기 한국선교에 있어서 주일 성수는 나름대로 율법적인 측면에 가까울 만큼 엄하게 지켜왔다. 그러나 근래에 주일 성수에 대한 논의는 그 초점의 변화를 맞고 있다. 10년 전쯤만 해도 '주일 성수'하면 성가대의 간식을 주일 아침에 배달해 와도 되는지, 청년들이 주일 오후에 교회 뜰에서 배구를 해도 되는지, 학생들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내일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해도 되는지 하는 것들이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달라졌다. 주일 공 예배시 성도들의 출석율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연휴나 여름 휴가철을 맞으면, 아니 심지어는 사소한 기후의 변동에도 예배 출석율이 곤두박질한다. 오후 예배 출석은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다가 여름철에는 성가대가 없는 예배를 드린 다든지 혹은 3개월 동안 아예 교회 문을 닫든지 하는 서구 교회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주일 성수의 핵심인 공예배 출석이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무엇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주일 성수와 관련하여 교회사에서는 크게 2가지 흐름이 있어왔다. 하나는 주일을 '기독교 안식일'로 규정하면서 그것을 구약의 안식일 규정대로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적 입장이었다. 다른 하나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는 다르며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⁵⁵⁾

초대교회에서는 대체로 복음주의적 입장이 우세했다. 그 시대의 교회는 끊임없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의 영향을 방어해야 했을 뿐 아니라

54)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2000년 안양대신대원 강의안), p.40.

55) 한진환,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주일성수를 위한 제언”, (월간고신 1995년 11월), p.41.

박해의 시대에 드러내놓고 주일을 쉴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면서 점차 율법주의 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321년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이후 세월이 흐를수록 대중들은 그날을 오락과 여흥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위기감을 느낀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 계명을 끌어옴으로 주일 성수의 의미를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 다시 복음주의적 입장이 힘을 얻게 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세 때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의 ‘聖日’이 있었기에 그 날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 전통의 요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갖게 된 자유는 모든 날, 심지어 주의 날을 지키는 것(날을 특별히 구별하고 특별히 정해서 지키는 것을 미신적인 요소로서 지키는 것이라고 함.)까지도 중요치 아니한 방편적인 문제로 만들었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입장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들의 구별은 철폐된 것으로 보았다. 일주일에 하루라고 하는 주기도 절대적이 아니라고 했다.⁵⁶⁾ 모든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며, 주님은 언제나 어느 날에나 동일하게 역사 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일은 지킨다는 단어보다 보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인간들의 약함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하루를 택해 예배를 드리며, 또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주일에 합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간에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칼빈이 의식 법을 제외한 모세의 법의 대부분을 도덕법으로 이해하였고 십계명안에 포괄할 수 있었기에 중생 된 이후에도 그 법의 사

56) Ibid.

용(usus Legis tertius)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제 4계명 안식일 준수도 도덕법으로 해석하였고 중생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의식적인 성격을 제외한 주일의 개념아래에서 같은 방식으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는데.⁵⁷⁾ 이 방식은 퓨리탄들이 지켰던 입장과 같았다.

한편 근래에 와서는 청교도 운동을 중심으로 다시 율법주의적인 입장이 우세하게 되었다. 종교적 자유와 경건한 생활을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그들의 경건의 바탕이 바로 주일 성수에 있다고 생각했다.⁵⁸⁾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만연한 상업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 아래 주일은 안식일도 예배의 날도 아닌 오락과 취미생활을 위한 휴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교인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입장에 대하여 한진환 교수는 5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다.⁵⁹⁾

“첫째, 교인들에게 개혁주의적 예배 개념을 철저히 심어주어야 한다.

둘째, 주일 공 예배에 교회력을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성찬이 있는 예배를 제안한다.

넷째, 주일 저녁예배(혹은 오후예배)는 특성 있는 예배로 구성해

57) 김영규, op.cit., p.38.

58) 1606년의 청교도 설교자들이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엄격한 주일성수를 강조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단순히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적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하루를 원하신다. 주일 24시간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과 하루종일 심지어 밤에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주일 예배 이후에도 합당하게 하루를 보내도록 설교하였다. 김재성, “청교도의 주일성수에 대한 신학”, (월간고신 1995. 12월), p.61.

59) Ibid., pp. 42~43.

야 한다.

다섯째, 주일의 모든 행사들이 밝고 긍정적인 축제와 같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주일의 근본적인 의미 분석에 있어서 개혁주의적 입장을 정확히 정립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방법적인 문제에 치우친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실적응의 관한 구차한 변명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엄밀하게 되 집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초대교회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일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개혁주의의 실천적 의미와 정신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즉 지금까지 주일성수와 관련한 문제들은 모두가 시대 속에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면 진정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주일성수의 실천적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이점에 대하여 김영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참된 종교개혁정신이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파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환원주의를 비판하고 자신의 시대를 진보적으로 미화하는 그런 현대적 낙관주의를 택하는 자들이 대개 당 시대를 파괴하는 수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런 낙관주의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등뒤로 돌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⁶⁰⁾

60)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p.25.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 과 반대로 주일을 세속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입장에서 주일에 관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주일은 교회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는 성도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가 최대한 함께 모일 수 있고, 한 몸으로서 교제와 섬김과 나눔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이웃에 복음을 전하며 함께 설 수 있는 날을 택하여 한 주간에 주일로 정하여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부득불 사정으로 인하여 모두가 모임을 갖는 날(일요일) 동참할 수 없는 경우는 나름대로 하루를 정하여 주일로 보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21세기에 맞는 교회는 성도들이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주일을 보내기 위해 한 주간 내내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으며, 섬김과 봉사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날이 거룩하며 늘 주님 안에서 존재함으로써 모든 날이 주의 날 이며,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한 주간에 하루는 도덕 법적 차원에서 반드시 쉬면서 모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들이 많은 돈과 많은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건물을 한 주간 단 한시간을 위해 평일에는 텅텅 비어놓아야 한다면 그것도 비 성경적인 것이다. 요즘 서울 직장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성경공부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지역과 사정에 맞추어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일예배와 동일한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Ⅲ. 결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주일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졌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다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획일적인 방식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대도 전통적인 교회는 이런 변화된 사회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옛 관습을 그대로 지키도록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주일을 지키기는 힘들어지고 급기야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를 낡은 전통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풍조를 낳게 되었다. 주일에 관한 이 두 가지 상반된 현실을 보면서 주일 성수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세속화로부터 보호하는 길인 동시에 교회가 현실에 적응하도록 갱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적으로 주일을 이해하고 잘 지켜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교의 전통과는 다른 원리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한 신약 성도들은 전통적인 율법주의나 세속화된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균형 잡힌 원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에 대한 바울의 두 가지 모형, 곧 특정한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는 것과 매일을 안식일로 삼는 것이 둘다 필요하다. 일주일에 이르는 모두 창조의 제 8일을 향한 순례이다. 이 날에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변화를 겪는다. 노동, 가정, 성, 형제자매, 홀로 있음, 이웃, 휴식 등 세상적이고 즐겁고 흥분을 주는 이 모든 실재 안에서 현생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생명에 조명 받아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일주일의 이레가 모두 거룩한 까닭은 여드렛 날이 동터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1주일을 모두 개방함으로써 성도들이 한 주간 내내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공급받고 예배드리며,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의 빌딩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매일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성경공부를 하는 교회가 생기고 있고, 노인과 몸이 불편한 사람

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간과 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수요일 오후에 주일학교 수요일예배가 있었고, 금요일에는 청년회와 구역회, 토요일에는 학생회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교회는 성격을 달리한 모임(예배와 기도회 및 성경공부 등)을 요일에 제한 받지 않고 개최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모임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사회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과 그에 따라 많은 연령층이 자신의 삶의 상황에 맞게 바쁘고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이 한 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교회와 사회의 인식을 고려하여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개방하는 문제가 어려울 때는 기존의 수요일 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대상에 맞게 개방하는 것도 무방하겠 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주일에 이르기까지 매일 모여 예배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전도에 힘쓸 수만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날의 회복이며, 예수 안에서 완성된 안식일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모든 날을 개방하는 문제는 교회가 진정으로 교인들에게 다가서는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요구하게 된다. 즉 모든 교인이 한날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대중 집회’에 관한 기대와 미련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오직 한날 모두가 모인 숫자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규모를 측정하는 과시적 집회는 점차 사라져야 할 것이다. 오히려 요일별, 시간별로 분산된 소그룹의 형태로와 중간그룹으로 나누진 형태가 자신의 상황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각양 다양한 성격으로 분산되어 모임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 맞는 예배와 기도와 성경공부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됨으로써 차등화 되고 단계화된 신앙양육도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더욱더 복잡하고 다양화된 세상에 공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회의 새로운 갱신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의 생리가 되어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일에 관한 신앙의 결단은 다음이야기로 끝을 맺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단계에서 독일군 전선이 무너졌을 때 본철펬퍼(Dietrich Bonhoeffer)는 부헨발트에 있던 다른 15명의 수감자들

과 같이 탄흔이 수두룩한 대형 화물차에 실려졌다. 무장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먹고마실 것이란 하나도 없이 다른 감옥에 수용되기 위한 지옥 같은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화물차가 부서지자 포탄으로 움푹 파인 구덩이에서 폭풍이 부는 추운 밤을 보냈었다. 호송원들은 죄수들로 다뉴 부강을 건너도록 하려고 애를 쓰다 하루해를 날려보냈다. 드디어 폭격을 당하지 아니한 전마선을 하나 발견하여 그들은 강을 건너 스킨비크란 바바리아인의 마을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다. 페인 베스트는 본훼퍼가 그날 수감 당한 기분과 그로 인해 갖게 된 결심을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말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간단한 예배를 보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자 독사 같은 눈을 가진 두 사람이 문을 열고 같이 떠날 준비를 하라고 호령했다.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한가지 뿐, 그것은 처형대로 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⁶¹⁾

그래서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그날 본훼퍼는 지상에서 마지막 주일을 지켰던 것이다. 그와 그의 동료 죄수들이 주일을 지킨 환경은 특수하였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기독교신자는 언제나 주일날이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61) Cf. "Profiles." The New Yorker, Nov. 27, 1965, pp. 122-123.

참고문헌

<단행본: 국내>

- 곽안련, 「한국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 김경식, 「안식일 병고침에 나타난 예수의 의도」, 1996
-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서울: 예장종교교육부, 1956.
-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서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 ,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 강대선, 「주일성수: 기획-교회생활교육 어떻게 지도할까?」, 1998.
- 박상우, 「주일 성수, 흔들리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특집-주일성수, 무엇이 문제인가?」, 1995.
- 한정배, 「안식일에서 주일까지」, 서울: 도서출판 선교, 1989.
- 이만열,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편, 1999.
- 채기은, 「한국교회사」, 서울: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77.

<번역서>

- Henry H. Halley, 「성서핸드북」, 박영조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0.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II」, 김종흡 외3역, 「기독교강요 上」,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Paul K. Jewett, 「The Lord's Day」, 옥한음역, 「주일의 참뜻」,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4.
- R. Paul Stevens, 「Disciplines of The Hungry Heart」, 박영민역,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서울: I. V. P.
- William E. Diehl, 「Thank God, It's Monday!」, 이종태역,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서울: I. V. P, 1998.

<단행본: 국외>

- A. H. Lewis, 「A Critical History of Sunday Legislation」, New York, 1988.
- A.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 III, Nashville: Broadman, 1990.
- Charles Hodge, 「Systmatic Theology, Vol.III」, Grand Rapids: Eerdmas Publishing Co. 1960.
- Fairbairn, 「The Typology of Scripture」, New York, 1911.
- O. Cullman, 「Early Christian Wo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1978.
- P. Schaff, 「The Irish Artides of Religion, 56 : The Creeds of Christendon, II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6.

<논문>

- 고광택, “주일성수에 대한 성경적 고찰”,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1.
- 김달원, “주일성수에 관한 신학적 고찰”,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86.
- 김대석, “안식일과 주일문제”, 고려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4.
- 나종구, “주일성수에 관한 연구”,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86.
- 육준수, “주일성수의 전당성에 관한 고찰”,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85.
- 임준표, “주일신학의 개론적 고찰”, 서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84.
- 전상일,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목회학적 고찰”,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88.
- 정광석, “주일성수에 대한 성서적 고찰”,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85.

<간행물 및 사전>

교사의벗, 서울: 한국 기독교교육 1991.1-3.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1994.7-9.

신학정론, 서울: 1988-1988.6권1호-2호.

신학지남, 서울: 총신대, 1977-1977.44권1집-4집.

월간고신, 고신대학교, 1983. N.7-12

_____, 1986-1986, 6권1-3호

_____, 1987-1987, 7권7-9호

_____, 1992-1992, 133호-135호

_____, 1995-1995, 169-171호

_____, 정근두, 「주일성수란 무엇인가?: 특집-주일성수 무엇이 문제인가?」, 1995. 11월

일하는 제자들, “주일성수 정신은 남고 꺾테기는 가라”, 서울: 도서출판 한세, 1997년2월

G.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T. Vol.III. Eeerdmans, 1974.

Justin, Martyr, 「First Apology Vol67」, 박근용외 5인역, 기독교대백과사전Vol. 14, (서울: 기독교문사, 1983.

Magnesians,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14」, 박근용외 5인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3.